

**\* 과목 및 주제 \***

생활과 윤리 >> '자연에 대한 관점 쓰기' 논술 수행

**\* 가이드 \***

- 주제 선정과 발표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

생활과 윤리 수행평가 자료를 요청해주셨습니다. 이에 경제학과를 희망하는 나현 학생의 진로를 고려하여 기업과 소비라는 주제 아래 '패스트 패션과 소비문화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 방안'을 세부 내용으로 선정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해드렸습니다.

각 문항 별로 서술에 사용하실 수 있는 자료와 수행평가 서술 방향성을 제공해드렸으니, 참고하시어 수행평가를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부 내용
항목별 가이드	<p>■ 1번 문항: 진로 혹은 관심사와 관련하여 환경을 해치고 있는 사례 &gt;&gt;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과잉소비, 과잉생산의 초래하는 환경오염</p> <p>개성과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산업은 우리의 삶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점점 패션산업의 규모도 점차 확장되고 있다. 삼성패션연구소의 '2023년 패션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패션 소매판매액은 62조 원 대가 전망된다. 특히 패스트 패션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패스트 패션은 최신 트렌드를 즉각 반영하여 빠르게 제작하는 의류를 의미하며, 한 계절이 지나지 않아 버리는 패턴을 보인다.</p> <p>그런데 의류는 제작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패션 산업이 배출하는 탄소량이 전체의 10%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항공업과 해운업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합보다 더 많은 양이다. 청바지 한 벌을 생산할 때 약 11.5kg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약 45km를 달려갈 수 있는 양이다.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203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C 이내로 줄이기 위한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거란 전망이다.</p> <p>※ 관련 기사는 아래에 자료#1, 2로 별도 첨부해드렸습니다.</p> <p>■ 2번 문항: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첫 번째 이유와 해결방안</p> <p>윤리적 #1 문제: 과잉소비와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p> <p>패스트 패션의 성장과 유행으로 세계 섬유 생산량이 급증하였다. 미국 섬유산업 비영</p>

리단체 텍스타일 익스체인지(Textile Exchange)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세계 섬유 생산량은 1억 1300만 톤으로 2000년 5800만 톤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패스트 패션 의류는 대부분 합성섬유로 제작되며 이 합성섬유의 제조와 사용 과정이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패션 산업에 쓰이는 면화는 세계 농지의 약 2.5%를 쓴다. 또한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합성 재료는 매년 3억4200만 배럴의 기름을 필요로 하며, 염료 사용 등의 의류 생산 과정은 1년에 4300만 톤의 화학물질을 필요로 한다.

이는 지나친 성장 지상주의를 비판하는 슈마허의 관점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지나친 욕구 충족과 성장을 지양하는 슈마허의 입장에서 트렌드에 매몰되어 지나친 소비문화를 양성하고 이가 또 환경문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패스트 패션은 빠른 트렌드의 변화와 새로운 제품을 지속적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한다.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의류를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 많은 자원이 소모된다. 이로 인해 원료 고갈과 환경 파괴가 가속화되며, 지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패스트 패션의 문화는 자본주의 소비 문화를 더욱 강화시키고, 자본주의의 한계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를 야기함과 동시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다.

#### >> 활용할 수 있는 윤리 이론 혹은 사상가의 개념: 슈마허 (p.147)

**해결방안 #1:** 슬로 패션은 친환경적인 의류 생산·소비를 추구하고, 자원 낭비와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을 지양한다. 생산과정에서부터 천연재료 및 재활용 소재와 같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동물권, 공정거래 또한 무시하지 않는 것이 슬로 패션의 모토이다. 이를 통해 슬로 패션은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패션을 제시한다.

이제 개개인으로서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우리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소비패턴을 구축해야 한다. 먼저, 무분별한 새 옷 구매를 지양해야 한다. 슬로 패션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단순한 방법은 유행에 따른 무분별한 의류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변화하는 트렌드마다 옷을 여러 벌 구매하고 버리는 것보다 오랫동안 잘 입을 수 있는 옷 한 벌을 구매하는 것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친환경적인 의류 소비를 추구해야 한다. 동일하게 보이는 옷일지라도,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했는지, 탄소발자국의 크기는 어떤지 대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친환경적인 의류를 생산하는 브랜드를 조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우리가 만드는 지구 환경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지금 우리의 지구는 변화가 필요하다.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의류 소비양상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아주 쉽고 간단한 노력이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슈마허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주장한 것처럼 진정한 행복과 풍요로운 삶은 지나친 욕구 충족과 트렌드에 무차별적 소비가 아닌, 절제하며 자족하는 삶을 통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교과서 내용)

■ 3번 문항: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두 번째 이유와 해결방안

**윤리적 문제: 과잉생산과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의류 과잉생산뿐만 아니라 과잉소비를 유발해 의류의 평균 수명을 줄이고 의류 폐기물 생산을 앞당겼다. 박예원(연세대 의류환경학과) 교수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쉽게 구매하고 버리는 소비자 패턴 형성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2020년에는 하루에 약 225톤의 섬유가 생활폐기물로 버려졌다. 4년 전에 비해 약 60톤 증가한 수치다.

합성섬유는 자연 분해가 어려워 토양 오염을 유발한다. 합성섬유가 생분해되기까지는 약 200년의 세월이 걸린다. 버려진 섬유는 재활용도 힘들어 매립·소각되는 경우가 더 많다. 유 교수는 “섬유의 종류별 분류와 오염처리가 까다로워 의류 재활용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옷을 쓰레기라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저렴한 가격에 고민 없이 산 뒤 한철 입고 버린 옷, 그 편리함의 대가는 누가 치르고 있을까? 어제 산 티셔츠, 오늘 버린 청바지에 우리의 지구가 신음하고 있다. 실제 한 명이 1년에 버리는 옷의 양은 30kg 정도다. 내가 무심코 버린 옷 한 벌이 대량으로 쌓여 소각되거나 수출되고 있다. 버려진 옷들은 가나, 방글라데시와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고 수출된 대부분의 옷은 썩지 않고 남아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전문 처리시설이 많지 않은 국내에서는 헌 옷을 땅에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매연으로 인한 공기오염과 땅에 묻은 섬유가 부식되면서 침출수 발생으로 토지를 오염시킬 수 있고, 화학섬유로 만들어진 옷들은 오랜 시간 썩지 않거나 자연분해에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요나스의 책임 윤리 관점에서 이러한 과잉 소비와 폐기의 문제는 심각한 패스트 패션의 과잉소비와 폐기는 자원 소모와 환경 파괴를 가속화한다. 빠른 속도로 새로운 제품을 소비하고 버리는 문화는 원료 부족과 폐기물 문제를 야기하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책임을 떠넘기기 어려운 문제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의 현재 행동이 미래 세대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전달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패스트 패션 산업이 지속 불가능한 소비문화를 촉진한다면, 우리는 미래 세대의 복지나 생존 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 활용할 수 있는 윤리 이론 혹은 사상가의 개념: 요나스의 책임 윤리(p.146)

**해결방안#2:** 우리가 입고 버린 옷은 어디로 갈까? 한국에서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처리할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일반쓰레기로 배출해 소각·매립하거나, 의류수거함에 넣거나. 그러나 의류를 재사용할 거라 기대하는 의류수거함 역시 문제가 많다. 관련 규정이 없어 관리가 제각각이고, 재사용에 대한 기준도 없다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건 더 문제다. 배출 원단에 대한 규정조차 없다. 합성섬유로 이루어진 의류가 많은데, 이런 옷들은 매립과 소각과정에서 유독가스를 배출한다. 소각장 관계자 B 씨는 “옷은 전부 태운다. 일반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소각한다. 일반 가정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고, 동대문 등 의류업체가 많은 특정 지역에는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의류 폐기물만 따로 소각장으로 가져오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의류 재질이나 유독가스 배출 가능성 등을 따지지 않고 그냥 태운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였을 때, 의류 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법규와 처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패션’이란 의류의 생산과 공정, 소비와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해 오염과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공정 과정에서 의류 쓰레기를 최소화하며, 재사용·재활용을 통해 오래 제품을 사용한다. 그냥 폐품을 재활용하는 차원이 아니다. 창의성과 상상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환경을 위해 버려지는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속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폐낙하산은 가방의 안감으로, 버려질 뻔한 천은 포장재로, 찻잎을 담았던 차 포대는 상표로 변신한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소비자는 실생활에서 의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리폼, 중고거래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 자료#1: 과잉생산·소비 초래한 패스트 패션, 환경 위기 앞당긴다

김경민(사범대 영교20) 씨는 주 1회 이상 옷을 구매한다. 마음에 드는 옷을 바로 구매하다 보니 몇 번 입지 않은 옷이 쌓였다. 방을 따로 뉘야 할 정도다. 옷장을 정리하려다 보니 포장조차 뜯지 않은 옷들도 있었다. 여전히 어떤 기준으로 옷을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다. 양시원(문과대 사회22) 씨는 한 달에 3~4벌의 옷을 산다. 어느 날 패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동기들이 무신사 구매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다른 사람보다 옷을 많이 소비한다고 느꼈다.

옷을 좋아하는 개인이면 친숙함을 느낄만한 이야기다. ‘패스트(fast) 패션’의 성공으로 인해 소비자는 유행에 맞는 옷을 쉽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패스트 패션은 저렴한 가격에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해 제작·유통하는 의류 및 산업을 뜻한다. H&M, 자라(ZARA), 스파오(SPAO), 유니클로(UNIQLO) 등이 대표적인 브랜드다. 패스트 패션은 일상 속 편리함을 가져다줬지만, 의류 과잉생산과 과잉소비를 촉진시켜 기후위기를 앞당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 많이 만들고, 많이 소비한다

패스트 패션 기업의 별칭은 SPA(제조직매형 의류) 브랜드다. 기획·생산·유통·판매를 하나의 브랜드에서 직접 담당하기 때문이다. 의류 제작의 전 과정을 통합했기에 일반 브랜드에 비해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주기가 짧다. 일반 브랜드가 1년에 4~5회 계절별로 상품을 선보이는 반면, SPA 브랜드는 2주 단위로 새 제품을 내놓는다. 심지어 이보다 생산주기를 더욱 앞당긴 '울트라' 패스트 패션도 등장했다. 중국 SPA 브랜드 쉬인(SHEIN)은 이를 5일까지 단축해 의류를 만든다.

패스트 패션의 성장과 맞물려 세계 섬유 생산량도 늘어났다. 미국 섬유산업 비영리단체 텍스타일 익스체인지(Textile Exchange)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세계 섬유 생산량은 1억 1300만 톤으로 2000년 5800만 톤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었다. 의류 과잉생산뿐만 아니라 과잉소비를 유발해 의류의 평균 수명을 줄이고 의류 폐기물 생산을 앞당겼다. 박예원(연세대 의류환경학과) 교수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쉽게 구매하고 버리는 소비자 패턴 형성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가정에서 버려지는 섬유도 과거에 비해 늘고 있다. 2020년에는 하루에 약 225톤의 섬유가 생활폐기물로 버려졌다. 4년 전에 비해 약 60톤 증가한 수치다.

## 합성섬유가 오염의 주요 원인

패스트 패션 의류는 대부분 합성섬유로 제작된다. 패스트 패션 산업은 합성섬유의 대량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윤철 박사는 "전 세계 섬유 중 합성섬유가 65%를 차지한다"며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폴리에스터는 저렴한 가격에 비해 내구성이 있어 가성비 섬유 소재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합성섬유가 이산화탄소 배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오염, 토양 오염 등 환경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의류는 제작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패션 산업이 배출하는 탄소량이 전체의 10%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항공업과 해운업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합보다 더 많은 양이다. 청바지 한 벌을 생산할 때 약 11.5kg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약 45km를 달려갈 수 있는 양이다.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203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C 이내로 줄이기 위한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합성섬유는 제조와 사용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킨다. 세탁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유신정(경희대 의상학과) 교수는 "세탁에 의해 바다로 흘러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을 오염시키고, 이를 다시 인간이 섭취하게 되면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CUN)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의 35%가 세탁 시 손상되는 합성섬유에서 발생한다.

또한 합성섬유는 자연 분해가 어려워 토양 오염을 유발한다. 합성섬유가 생분해되기까지는 약 200년의 세월이 걸린다. 버려진 섬유는 재활용도 힘들어 매립·소각되는 경우가 더 많다. 유 교수는 "섬유의 종류별 분류와 오염처리가 까다로워 의류 재활용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중고 의류의 경우 해외로 수출된다. 경제복합성관측소(OEC)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5위의 헌 옷

수출국이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중고 의류 수출량은 약 30만 톤에 달한다. 선진국에서 수출된 의류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향한다. 해당 국가의 상인들이 이를 저렴한 가격에 수입해 재판매한다. 문제는 그 양이 처리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나 오다우강 주변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옷들이 쓰레기가 돼 산을 이루고 있다.

### 글로벌 환경문제 해결 위해 총력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의류 환경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각국 정부는 대응에 나서고 있다. 패스트 패션의 진원지인 유럽은 지난해 3월 '지속 가능한 순환 섬유를 위한 EU 전략'을 공개했다. 이는 △2030년까지 재활용 섬유 일정 비율 이상 사용 의무화 △의류 내구성 강화 △미판매 의류 폐기량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앞서 프랑스는 재고 의류 및 신발 등의 폐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기도 했다. 생산자, 수입자, 유통업자가 건강·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폐기 대신 자선단체 등에 기부해야 한다.

유럽의 움직임은 국내 대응에도 영향을 미쳤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재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EPR은 생산자에게 폐기물이나 포장재의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과금을 내게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현재 적용되는 대상 외에 '폐의류 및 폐섬유' 등에 대한 제도 적용도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같은 해 8월 친환경·저탄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친환경 섬유패션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앞서 50개의 국내 주요 패션브랜드는 △친환경 소재 사용 지속 확대 △리사이클 및 업사이클 확대 △탄소중립 실현 기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선언식을 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의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운철 박사는 "환경보호를 위해 기업은 규제를 따라야 하며, 소비자들은 의류를 오래 입는 의식 있는 소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신정 교수는 "기업은 \*그린워싱이 아닌 진정성 있는 실천을 하고, 소비자는 무엇보다 현재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린워싱(Green Washing): 위장환경주의. 기업이 환경문제는 축소하고 일부 과정만 부각해 마치 친환경 사업인 듯 홍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출처: 조경준 기자\_고대신문(<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40527>)

**자료#2: '그 많던 옷은 다 어디로 갔을까' 환경오염 2위 패션산업의 이면  
한 해 소각 26만 톤, 매립 8만 톤, 배출·재사용 기준조차 없는데 환경부 "아직 도입할 단계 아냐"**

패션 산업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산업'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지만, 한국에서 이 같은 상황을 바꿀 논의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기후 위기 시대가 도래해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이 경영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데도 말이다. '패션피플(패피)'은 '최신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트렌드에 민감한 이들은 패스트 패션을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비치지만, 이제는 환경과 기후위기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기반해 소비하는 '그린 패피'로 달라지고 있다. '그린 패피 탐사대'는 새로운 패피의 눈으로 패션 산업의 문제를 파헤치고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2년 3월 EU(유럽연합)는 '패스트패션' 규제를 예고했다. 옷을 일회용품과 같이 소비하고 버리는 것을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EU는 2030년까지 △재활용 섬유 일정 비율 이상 사용 의무화 △재고품 대량 폐기 금지 규정 △일정 수준 이상의 내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미세 플라스틱 방출을 억제하고, 글로벌 의류 산업의 열악한 노동 조건 역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패션 브랜드도 규제 대상이다.

프랑스 팀머만스(Frans Timmermans)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든 직물은 내구성을 갖추고, 재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재활용 섬유로 만들어지고, 유해 물질이 없어야 한다(All textiles should be long lasting, recyclable, made of recycled fibres and free of dangerous substances)"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프랑스와 영국 등은 2025년부터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합성섬유 필터 장착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EU에 따르면 소비자 1인당 평균 11kg의 섬유가 버려진다. 일회용품 처럼 잠깐 쓰고 금방 버려지는 의류가 많고, 의류 재질 규정도 없어 폐기 시 유해 물질이 나오는 문제를 직면하고 규제하겠다는 의지다. 최근 기후 위기가 대두되면서 많은 탄소중립 정책이 나왔지만, '패션 산업'이 중점이 된 건 이례적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안타깝지만 국내에서는 패션, 의류와 관련한 이 같은 규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관련 논의조차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 #우리가 쓰고 버린 옷은 어디로 갈까, 태우거나 묻거나

의류산업에 종사하던 A 씨가 의류 폐기 문제에 의문을 품게 된 건 10여 년 전 개성공단 관리자로 있었을 때다. "개성공단에서는 쓰레기를 처리할 일이 없었어요. 옷을 제작하고 남은 자투리 원단들을 모아서 버리면 북측 사람들이 전부 가져갔거든요. 버리려고 가져간 게 아니라 그걸 기워서 사용하려고요. 그래서 버리는 게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이때 처음으로 의문이 생긴 거죠. 한국에서는 어땠지? 폐기되는 의류와 원단이 정말 많은데 그게 다 어디로 가지? 그 전에는 관심도 없었죠. 충격이었던 건 의류는 제작할 때도 폐기할 때도 별다른 규정이 없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입고 버린 옷은 어디로 갈까? 한국에서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처리할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일반쓰레기로 배출해 소각·매립하거나, 의류수거함에 넣거나. 그러나 의류를 재사용할 거라 기대하는 의류수거함 역시 문제가 많다. 관련 규정이 없어 관리가 제각각이고, 재사용에 대한 기준도 없다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건 더 문제다. 배출 원단에 대한 규정조차 없다. 합성섬유로 이루어진 의류가 많은데, 이런 옷들은 매립과 소각과정에서 유독가스를 배출한다. 소각장 관계자 B 씨는 "옷은 전부 태운다. 일반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소각한다. 일반 가정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

고, 동대문 등 의류업체가 많은 특정 지역에는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의류 폐기물만 따로 소각장으로 가져오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의류 재질이나 유독가스 배출 가능성 등을 따지지 않고 그냥 태운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의류라고 광고하는 제품들도 재활용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친환경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여러 원단이 섞여 일일이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페트병 등을 활용해 ‘재활용 섬유’로 만들어진 의류라도 다시 재활용할 수는 없다. 의류업계 관계자 C 씨는 “보통 재고가 남으면 2년 정도 아웃렛까지 가서 판매를 한다. 그 이후 남은 재고들은 보통 전부 소각한다. 최근에는 환경을 고려해 페타이어로 활용하거나 기부하는 브랜드도 있다. 다만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브랜드마다 처리 방식이 상이하고, 섬유 혼용률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 #통계는 불분명, 규제는 부재, 환경보다 성장에 치중한 환경부

환경부 환경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섬유류는 37만 664톤이다. 이 중 재활용은 단 2만 1433톤, 5.8%에 불과하다. 반면 소각은 26만 5154톤, 매립은 8만 606톤 규모에 달한다. 일반 종량제 쓰레기와 섞여 파악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로 소각, 매립되는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의류에도 재활용 의무 등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를 운영한다.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한 것인데, 음식물, 화장품, 종이, 타이어, 각종 포장재 등이 여기에 포함되지만 의류는 빠졌다. 의류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다.

2022년 12월 여러 언론 매체가 환경부에서 의류와 섬유에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적용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EU 흐름에 맞춰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확인 결과, 환경부가 이 같은 방안의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향 파악 목적으로 의류도 포함된 것이다. 국내에까지 도입할 계획은 없다. 우리나라가 당장 그렇게까지 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서 발주한 ‘품목별 재활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의 내용을 실제 살펴보니 의류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뿐 아니라 형광등, 전지 등 다른 항목도 포함됐다. 2023년 1월 3일 공개한 환경부 업무보고에도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폐기물 대책 역시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올해 업무보고에 탄소중립이나 폐기물 대책 등 환경 보호적인 측면보다 신산업 창출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수출 10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의류업계 관계자 D 씨는 “정부에서 손 놓고 있는데,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친환경을 외치는 게 신기할 정도다. 소비자가 이를 선호하기에 브랜드에서 소비자 눈치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린워싱(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위장환경주의) 문제도 나타난다. 애초에 규제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비판하겠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출처: 전다현 기자\_비즈한국(<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5026>)